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진행

역사적인 당 제8차대회
가 가리킨 진군행로따라
겹쌓이는 난관을 뚫고 격
양된 투쟁기세를 높이 떨
치고있는 전당의 당원들과
은 나라 인민들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속에서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가 6월 15일
에 열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는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
서 포치한 2021년도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집행정형
을 중간총화하고 경제사업
과 인민생활의 절실한 현안
들에 대한 해결대책을 수
립하며 조성된 정세에 맞
게 국가적인 중대사업들을
강력하고 정확히 추진하는



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이야말로 조선혁명의
생명력인 백철불굴의 혁명
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
투의 투쟁기풍이 최대로
필요한 때라고 하시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앙양
된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
시켜 올해의 정책적과업들
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려는것
이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
한 기본취지라고 말씀하시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토의할 의정
들을 제의하시었다.

문제를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이번 전원
회의를 소집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
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함께 회의장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정력적인 령도활동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우리
당과 인민의 역사적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외에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들, 도급지도적
기관과 시, 군, 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
이 방청으로 참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의 위임에 따라 전원회의를 사회하시
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먼저 전당이

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첫째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 실행에 진입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당과 국가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었으며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열의가 비등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올해에 들어와 혁명투쟁의 주객관적
조건과 환경은 더 어려워졌지만 상반기
기간 공업총생산계획을 144%, 지난
해 동기에 비해 125%로 넘쳐 수행하고
현물량적으로도 많이 장성하고있을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일어서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재 우리앞에 가로
놓인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으로 인하
여 국가계획과 정책적과업들을 수행하
는 과정에 일련의 편향들도 산생되었다
고 지적하시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지난해의 태풍피해
로 알곡생산계획을 미달한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전원회의에서는 주요국가정책들의
상반년도 집행정형총화와 대책에 관한
문제, 올해 농사에 힘을 총집중할데
대한 문제, 비상방역상황의 장기성에
철저히 대비할데 대한 문제, 현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
방향에 관한 문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
시키며 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 조직문제가 주요의정으로
상정되었다.

(2면으로 계속)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3 차 전원회의 진행



(1면에서 계속)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상정된 의정들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상반년간 주요정책과업들의 집행정형에 대한 실태자료와 당적, 국가적으로 시급히 대책하여야 할 문제들이 전원회의앞에 보고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 내각총리가 올해 경제부문앞에 제시된 정책과업들의 집행정형에 대하여,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인민군대사업에 대하여, 김재룡 당중앙위원회 부장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정형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제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첫째 의정토의에서 상정된 문제들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에서 인민경제 각 부문과 단위들의 상반년간 사업정형을 상세하게 분석총화하시고 실제적인

변화와 발전지향적인 결과를 반드시 이룩하며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부문별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건설건설부문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과 경공업, 수산, 도시경영, 국토환경보호부문 등 각 부문들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은 확대하고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은 극복하면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잘 하고 선진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올해 경제계획을 무조건 완수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여러 부문에서 현실적조건과 정책적요구에 맞게 자기 사업을 혁신적으로 조직전개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도와 인민들의 운명이 결려있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공세적으로 실속있게 전개해나가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사업의 혁신과 강화는 당과 혁명대오의 위력을 강철같이 다지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로 이어진다고 하시면서 현시기 당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론을 마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백배로 분발분투하여 올해의 전투목표들을 빛나게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리철만 당중앙위원회 부장이 현재까지의 영농사업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사를 잘 짓는것은 현시기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공적으로 다그치기 위하여 우리 당과 국가가 최종대시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지난해 농사교훈과 올해의 불리한 조건으로부터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농사에 총집중하는것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더욱 우심해지고있는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이겨내는데를 올해 알곡과 지점령의 판건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농업부문과 기상관측부문이 서로 긴밀히 협동하여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각 부문에서 이 사업을 강력히 지원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비상방역상황의 장기성에 철저히 대비할데 대한 문제를 셋째 의정으로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비상방역사업의 현 실태를 분석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악성비루스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날을 따라 계속 악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급선무들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비상방역상황의 장기화는 국가비상방역사업에서의 최대각성, 강한 규률준수기풍의 장기화인 동시에 경제전반을 유지하고 인민들의 식의주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장기화이라고 하시면서 현 조건에 맞게 국가적으로 방역대세를 완벽하게 견지하고 경제지도기관들이 비상방역이라는 불리한 환경속에서 그에 맞게 경제사업을 치밀하게 조직할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이와 함께 모든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이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제때에 원만히 해결해주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을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고 경공업과 수산업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들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3면으로 계속)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기 제 3차 전원회의의 진행

(2면에서 계속)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2일회의가 6월 16일에 계속되었다.

2일회의에서는 1일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인 결론들에 지적된 상반기도사업총화분석에 립각하여 하반기도 투쟁과업들을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투의를 위하여 부문별 분과들을 조직하고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이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였다.

금속, 철도운수분과, 화학공업분과, 전기, 석탄, 기계공업분과, 건설건설분과, 경공업분과, 농업분과, 비상방역분과,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투쟁분과, 당사업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연구 및 협의회들에서는 본 전원회의에 제기할 결정서 초안을 연구하고 과학성과 현실성이 담보된 대책안과 계획수자들을 확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3일회의가 6월 17일에 계속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장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오로지 국가와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 사색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이번 전원회의가 증대한 토의사업을 훌륭

히 수행하고 력사적인 자기의 령도적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2일회의에 이어 계속된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들에서는 하반기도에 수행하여야 할 실속있고 동원적인 과업들과 실천적방도들이 충분히 토의되었다.

전원회의는 종합된 건설적인 의견들을 심의하고 올해 시달된 주요국가정책적과업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적문제들을 반영한 결정서와 전당, 전군, 전민이 올해 농사에 힘을 집중하여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완수할데 대한 결정서를 일치가결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조선로동당의 대응방향에 대한 문제를 넷째 의정으로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 시기 국제정치무대에서 일어나고있는 주되는 변화들과 우리 혁명의 대외적환경에 대하여 개괄하시고 평가를 내리시었다.

특히 새로 출범한 미행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동향을 상세히 분석하시고 금후 대미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전술적대응과 활동방향을 명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평화

적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요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관한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적립장과 원칙들을 표명하시며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와 능동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유리한 외부적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 대응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데 주력해나가야 한다고 밝히시었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으로 현 실정에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애로를 제때에 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가 최종대사로 내세우는 활동원칙이라고 하시면서 여러차례의 협의회를 통하여 직접 료해하신 인민생활실재자료들과 그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신성하게 내세우고있는 위민헌신의 리념은 실지 뼈를 깎고 살을 저미면서 인민의 생

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부로 인민을 받드는 실천의 지침이고 행동의 기준이라고 하시면서 당이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늘 곁에서 고통을 함께 하며 인민의 복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바라는 절실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행조치를 취하려는것이 이번 전원회의의 핵심사항이라고 언명하시면서 인민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충심으로 친히 서명하신 특별명령서를 발령하시었다.

전원회의의 전체 참가자들은 온 나라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복무정신이 담겨진 김정은동지의 증대결심과 결단을 열광의 박수로 지지찬동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여섯째 의정으로 토의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강조하시었다.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강화되게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의 성장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연령기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젓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어린이들의 친부모가 된 심정에서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을 잘 먹이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당의 육아정책관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것으로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절절히 강조하시었다.

전원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제기를 크나큰 총동과 격정속에 심의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속에 관련 결정서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8기 제 2차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확대회의가 6월 1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조선인민군 각 군종사령관들과 군단장들,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조선반도주변정세와 우리 혁명의 대내외적환경의 요구에 맞게

혁명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들이 제시되었으며 조직문제가 토의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인민군대사업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인민군대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

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한 방도들을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며 당과 혁명사업, 국가와 인민의 리익, 사회주의건설을 보위하는 신성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군건설로선과 방침들을 한치

의 드림도 없이 완강히 관철해나가며 고도의 격동태세를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확대회의에서는 일부 군종, 군단급 단위 지휘관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 임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본사기자

더 큰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간다

어느덧 한해의 절반을 가까이하고 있다. 력사의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나날을 공화국의 인민들은 어떻게 맞고보았는가.

겨울이 도는 시련속에서도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며 종산투쟁, 창조투쟁으로 날과 달을 이어온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조성된 불리한 주객관적조건과 환경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앞을 가로막고있지만 공화국의 인민들은 비상히 양양된 열의를 안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계획한 많은 사업들을 전방성 있게 추진시키고있다.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수행에 총매진할것을 호소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소극과 보수, 기술신비주의를 불사하며 국내산 원료에 의거한 망간철생산을 정상화하면서 압연강재생산을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으며 천리마제련련합기업소와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부족되는 설비와 부속품, 자재들을 해결하면서 생산을 중단없이 내밀고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종산의 지름길을 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남충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2.8비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화학공업기지에서도 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화학제품생산을 늘이고 있다.

석탄공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의 수많은 단위들이 벌써 상반기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으며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제자원화사업을 힘있게 내밀면서 맡겨진 생산과제수행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또한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대건설전역들에서는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열풍속에 일과일조를 다하며 건설대상들이 키를 움켜쥐고있으며 사회주의협동법에서는 모내기전투를 와다닥 끝낸데 이어 김매기전투로 풀이번지고있다.

이렇듯 공화국은 막아나서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극복하며 부강조국건설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돌아보면 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시련과 난관을 헤쳐왔다.

하다면 공화국이 총철되는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며 승리의 한 걸음 따라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절세위인들께서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올바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인민대중을 불려일으키셨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시였다.

인민대중은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 모든것의 선생이며 이 세상에 진지진중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인민대중이다.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난관이 결방일수록, 예상치 않았던 도전에 부닥칠수록 인민을 믿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켜나가지였다.

전후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을 제시하던 때이다. 그때 사대주의, 보수주의, 소극성에 사로잡힌 일부 일꾼들은 방대한 탐광과 부닥치는 난관에 겁을 먹고 주저하면서 인민경제계획을 늦추거나 전진속도를 좀 늦추자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돈을 꾸어오자고 하였다.

그때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용케 조지동원한다면 높이 세운 인민경제계획을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자들과 부름을 마추하시고 나라앞에 조성된 현 실태를 그들에게 그대로 알려주시고나서 강제 1만1만 더 생산할것을 호소하시였다.

그이의 호소를 받들고 강선의 로동계급은 6만1천명의 불피연연기에서 12만명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렇듯 언제나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당력적지력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다른 나라를 수백년이 걸려야 이룩한 공업화를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 력사적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나라앞에 부닥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며 사회주의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닦아 놓으시였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공화국의 전진도상에는 참으로 많은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적들은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나라를 압살하려고 퍼논이 되어 날뛰고있다.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지켜나가자니 시련도 많고 고난도 많다. 그러나 결코 혁명의 길에서 물러설수 없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이런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싸우면 당해낼자가 없다고 하시며 사회주의수호전의 진두에서 서시였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신념의 구호를 전제 인민의 가슴속에 새겨주시고 끊임없는 투쟁으로 온 나라에 라틴의 불기둥, 성강의 불화, 대고도의 불길을 지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의 투쟁의 든든한 도약대가 마련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리마의 속도로 내달리는 우리 조국에서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신비로운 속도로 강산이 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화를 복으로, 그 복을 더 큰 복으로 만든것이 우리 당의 투쟁본래, 투쟁기풍이라고 하시였다.

올해 정초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최약의 조건과 시련속에서 남들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이제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새로운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당과 혁명적투쟁을 힘있게 벌려 지속적인 전진발전의 길에 속히 들어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공화국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공화국인민들의 양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올수 있는 구체화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안겨주시려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올해 수행하여야 할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집행정령을 중간총화회의와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의 절실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대책을 수립하며 조성된 정세에 맞게 국가적인 중대사업들을 강력하고 정확히 추진하는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도록 하시어 전체 인민의 양양된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나 가도록 하시였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이번 회의소식을 접하면서 새로운 신념과 용기를 가다듬고 더 높은 애국열의를 안고 투쟁해나갈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진정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결린 문제를 풀어나가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이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용감히 뚫고헤치며 승리만을 떨쳐낼수 있었던것이다.

수많은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막아나서는 온갖 도전과 장애를 쳐물리쳐며 신심드높이 승리의 한걸음을 가고있다.

본사기자 주 일 봉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며 우리라고 따르고있다. 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인민의 다함없는 진정의 고백에는 받아안는 사랑과 은정에 대한 고마움, 아무리 모진 풍파속에서도 지켜주고 품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친근하고 정다운 품에 대한 태도의 감정이 뜨겁게 어려여있다. 세상은 어머니라는 부름보다 더 신성하고 친근하고 소중한 부름이 없다.

그래서 인류는 사랑중의 사랑을 어머니사랑이라고 불렀다고 가정고귀한 헌신을 말할 때에도 어머니의 헌신을 꼽았으며 제일 따스한 품을 어머니품에 비기기도 하였다. 사랑과 행복의 총체인 어머니라는 부름에는 온갖 고생과 정을 다 기울여 걸음걸음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운명의 숨결기와의 같은 품에 드러는 한없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우리 인민들은 기쁨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부르며 따르고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당, 이 부름은 그 어느 사상가나 정치가, 로동계급의 수령이 정식화한 말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 스스로가 불러준 조선로동당특유의 명칭이라고 명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을 어머니라 스스로부르지 않는 인민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자면 우리 당이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이 말씀에는 조선로동당이 어머니사랑으로 인민들을 보살필뿐 아니라 슬하의 천만식물을 품어 안고 상상할수 없는 온갖 고생과 시련도 다 버티어가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기록에 마치고 낮과 북으로 형상된 민의 모습을 새긴 때로부터 력사의 주인공으로 언제나 인민을 내세우고 운명도 미해도 다 보살피주었다. 이 세상에는 각이한 명칭의 헤아릴수 없이 많은 당들이 있지만 조선로동당처럼 어머니당으로 불리우는 그런 인민적이고 헌신적인 당은 찾아볼수 없다.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시고 자신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이라는 지론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령도

하여오신 조선로동당이다. 인민사랑의 위대한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을 위하여 낫은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심부름꾼으로 되는것을 당건설사상과 당건설리념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에 대한 열사부부의 감동깊은 화폭들을 수놓아가고계신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고, 나에게서는 영웅청호도 훈장도 필요없다고, 나는 이를 악물고 허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며 슬하의 천만식물들을 위하여 자신의 천물을 초탈처럼 태우고계신다.

그 로고의 손길아래 조국땅은 물라보게 변모되고 자연의 광란과 그 어떤 횡포한 회오리로 인민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만은 앓아가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다정한 손길은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들을 더 어루만져주었고 뜻밖에 큰 물파래로 제안을 당한 인민들이 새 보금자리가 된다는 기간에 한지가 아닌 군당원회청에서 아무런 불편을 모르고 생활하는 놀라운 화폭을 펼쳐왔다.

하기에 인민들은 당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잠들어도 민길을 가고 그 이름을 불모되고 기쁨 때도 슬픔 때도 절하고 도속에서라도 휘날리는 붉은 당기폭을 먼저 떠올린다.

그 손길을 놓는다면 생의 먼길을 갈수 없고 그 품을 떠난다면 삶의 전부를 잃게 된다는 당에 대한 찬가를 전인민적송가로 부르는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조선로동당이 경애하는 그이의 영상으로 소중히 간직되어있는것이다.

세상을 통해 온다고 해도 바꿀수 없는것이 어머니사랑이라는 말이 있다.

가는 앞길에 설사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어머니를 믿는 자식처럼 공화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의 품을 떠나 살수 없음을 세무로 절감하고있다. 인민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이라는 절대초과로 굳건한 조선로동당은 천지창조가 불어와도 끄떡없이 자신이 키워낸 슬기롭고 위대한 천만식물이 있기에 그 미래는 더없이 밝고 창창한것이다. 오 략 속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을 실천해나가는 인민들

인민들보다 먼저 타보신 사연

한 나라의 령도자가 새로 완공된 스키장에 설치된 삭도의 안정성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제일먼저 타보시였다고 하면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한 첫 《손님》이 되시어 마식령스키장의 삭도에 남받쳐 오르신다.

주제102(2013)년 12월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삭도를 타시고 마식령의 정점인 대화봉으로 오르신 모습은 인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또 하나의 감동깊은 화폭이다.

마식령. 이름그대로 말도 쉬워서 넘는다. 이 령은 높고 험한데다 인적드문 외진 곳이었다.

그러나 이곳이 지금은 인민들의 웃음소리 드높은 현대적인 스키장으로 전변되었다.

산세가 험하고 수림이 우거진 이곳을 인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드시려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삼복의 무더위와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고 또 찾으시였다.

그렇게 마련된 마식령스키장이 인민들이 리용하는 데서 사소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그이께서는 인민들보다 먼저 삭도를 타보시는것이다.

인민들이 리용할 모든 주로들을 다 보겠다고 하시며 한겨울의 차거운 삭도의 자에 앉으신 그이께서는 정점으로 오르시며 마식령의 산발마다에 쪽쪽 뿜어내린 크고작은 스키주자들을 일일이 살펴보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첫 《손님》이 되신 사연은 비단 마식령의 산발에만 새겨져있는것이

아니다. 평양의 룡라도에도 경애하는 그이의 인민사랑이 깃들여있다.

현대적인 유원지건설을 맡기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건설이 한창일 때 현지로 찾오시고 물미끄럼대의 총계도 하나하나 밝아보시고 손수 종이우에 그림까지 그려가시며 건설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룡라인민유원지준공식날에 다시 찾아오신 그이께서는 유회장의 회전대를 제일선참으로 타보시며 유회기구의 안정성을 확인하시였다.

인민의 행복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시는분이시기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평양시민들이 리용하게 될 무궤도전차들에도 사랑의 자욱을 제일선참으로 찍으시였다.

인민들이 행복의 단정에 든 깊은 밤 평양의 밤거리로 현대의 무궤도전차가 달리고있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생산한 새형의 무궤도전차가 한창 시운전을 하고있는중이었다.

바로 그 무궤도전차 안에 있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타고계시였다.

인민들이 리용할 무궤도전차에 미

흡한 점이 있을세라 자신께서 타보아야 마음을 놓겠다고 하시며 시운전중에 있는 무궤도전차에 오르신것이였다.

무궤도전차를 타보니 편안하고 민음이 간다고, 완충장치도 좋고 진동과 소음도 없으며 속도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전차의 기술상태가 좋다고 평가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에서는 깊은 밤의 피로를 전혀 찾아볼수가 없었다.

무궤도전차를 리용하며 좋아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데는 그이의 미소만이 그이의 안광에 비껴있었다.

인민을 위하여 기울이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은 인민들보다 먼저 타보신 새형의 지하전동차에도 그대로 어려웠다.

아니 이 땅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고귀한 사랑과 헌신의 숨결이 맥동되고있다.

첫 《손님》이 되어주곤 하시는 그이의 마음속에는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미흡함도 없는 제일 좋은것, 최상의것을 안겨주고싶으신 아버지의 다정한 사랑이 가득차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경 율



2013년 12월 마식령스키장 개장식 진행

흔히 편지라고 하면 시간이나 거리관계 또는 다른 조건으로 하여 직접 만날수 없는 경우에 해야 할 말을 글로 적어 보내는것을 말한다.

허나 공화국에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류다른 편지가 사람들속에 전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제102(2013)년 12월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물고기대용을 이룩한것이 너무도 기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사업소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물고기잡이창고에도 들리시였다.

말 그대로 창고안은 물고기 바다였다.

물고기냄새가 비릿하게 풍기는 절임창고에서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물고기들이 가득차있는것을 보니 발견음이 떨리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창고인민들에게 공급할 물고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더니 곁에 서있는 일꾼들도 미처 어찌해야 할 줄 모르니 창고에 가서 사진을 찍으시라고 하시였다.

그러고나신 그이께서는 일꾼들에게 부대의 그 어느 장소에 가보아도 물고기냄새가 풍기고 군인들의 몸에서 물고기비린내가 날 정도로 정성적으로 먹던데 얼마나 좋은가고, 군인들이 든든해 질것이라고, 아마 힘들어 넘 처날것이라고 호뜻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때 한 일꾼이 그이를 부르며 부대군인들이 집에 있을 때보다 물고기를 더 많이 먹을뿐 아니라 매일 먹는다고 좋아를 한다고 하면서 병사들이 이런 사실을 가지고 고향에 편지를 쓰면 부모들이 쉽게 믿으려 하지 않을것이라고 즐겁게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물고기무지앞에 실의 비좁은 통로에 서서더니 여기서도 사진을 찍자고, 이런 곳에서 사진을 찍어야 사진찍을 맛이 있다고 하시면서 일꾼들을 자신의 앞자리에도 앉히고 곁에도 세워 두다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러고나신 그이께서는 일꾼들에게 부대의 그 어느 장소에 가보아도 물고기냄새가 풍기고 군인들의 몸에서 물고기비린내가 날 정도로 정성적으로 먹던데 얼마나 좋은가고, 군인들이 든든해 질것이라고, 아마 힘들어 넘 처날것이라고 호뜻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때 한 일꾼이 그이를 부르며 부대군인들이 집에 있을 때보다 물고기를 더 많이 먹을뿐 아니라 매일 먹는다고 좋아를 한다고 하면서 병사들이 이런 사실을 가지고 고향에 편지를 쓰면 부모들이 쉽게 믿으려 하지 않을것이라고 즐겁게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물고기무지앞에 실의 비좁은 통로에 서서더니 여기서도 사진을 찍자고, 이런 곳에서 사진을 찍어야 사진찍을 맛이 있다고 하시면서 일꾼들을 자신의 앞자리에도 앉히고 곁에도 세워 두다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러고나신 그이께서는 일꾼들에게 부대의 그 어느 장소에 가보아도 물고기냄새가 풍기고 군인들의 몸에서 물고기비린내가 날 정도로 정성적으로 먹던데 얼마나 좋은가고, 군인들이 든든해 질것이라고, 아마 힘들어 넘 처날것이라고 호뜻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병사들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그이의 열렬한 심정이 낫은 전설같은 사진전지이다.

그이께서 조국인민들에게 보내시는 사진전지가 어디 이뿐이다.

인민을 위한 최한창 창조물들이 일떠설 때마다 너무 기쁘시며, 그 소식 사진과 함께 인민들에게 한시바빠 전해주고싶으신 민길을 한 달음에 달려가시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 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였다.

언제인가는 병사들이 지켜선 초소를 찾오시어 병사들을 한사람한사람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오랜 시간 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그 송곳같은 화폭은 신문과 TV를 통해 접한 고향의 부모형제들도 저마다 기쁨과 감격을 금치 못하였었다.

정령 달과 해를 이어 끊없이 전해지는 수많은 감동깊은 사진전지들을 받아보면서 공화국인민들은 회색의 위원을 모시고나서는 끝없는 궁지와 자부심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나라의 부강번영에 안고 바치려 애국의 마음을 일터마다에서 혁신과 기적을 이룩하고있는것이다.

백 절 등 이 되기를 바란다고 진정에 넘쳐 말하였다. 본사기자

진물 식물은 곧은참나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80(1991)년 11월 뽕사산림학원 교수 소장 교수 박사 안재이 꼴로찌고와 부소장 교수 박사 유제프 스파야프가 삼가 올린 선물식물이다.

그들은 공화국의 식물학자들과 깊은 령계를 가지고 식물교류사업을 하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부소장 교수 박사 유제프 스파야프는 공화국을 방문한 기회에 수려한 대성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중앙식물원도 돌아보았다. 그 과정에 그는 식물학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공화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부소장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매한 품모에 대하여 알게 된 소장 교수 박사 안재이 꼴로찌고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경모의 정이 북받쳐오르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곧은참나무를 비롯하여 희귀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들여 선물로 준비하였다.

그들은 선물을 위대한 수령님께 드릴것을 공화국대표단 단장에게 부탁하면서 나무들이 조선에 뿌리내려 식물학발전에 도움



본사기자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조국통일 3대력량의 강화를 위하여

1960년대에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위업수행의 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중첩되어 있었다.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파쇼(정권)는 공화국에 대한 무장도발과 침략전쟁준비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다. 조성된 정세는 내외반통일 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새 전쟁도발행동을 저지시키기 위해 전민적통일 통일역량강화를 더욱 강화하며 조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력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더우기 남조선군사독재(정권)이 《승공통일》을 고집하면서 통일에 국제력을 가지않고 탄압하는 조건에서 자주적인 평화통일방향을 관철하자면 결정적으로 민족의 주제적인 통일역량을 강화하여야 하였다. 공화국은 일찍부터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통일역량의 축성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북과 남의 통일역량, 국제적력량강화에 힘을 넣었다. 조성된 정세와 조국통일위업수행의 현실적요구를 깊이 통찰한 위대한 집일성주석께서는 2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에서 조국통일의 3대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한 주제적인 방침을 천명하시었다. 강력한 통일역량을 마련하는 것이 빠르면 빠른수록 조국통일은 그만큼 더 빨리 실현되게 되고 반대로 통일역량을 마련하는 것이 더디면 더디수록 조국통일은 그만큼 더 늦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결정적담보로 된다. 공화국의 통일역량과 남조선의 통일역량은 조국통일의 위대한 주제적력량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기본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하나로 뭉치고 통일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있다. 북남조선의 통일역량이 같아질 준비되어 통합된 힘으로 침략적인 외세와 반통일매국집단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야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북과 남의 통일역량을 끊임없이 축적강화하면서 조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력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확대하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유리

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듯 조국통일의 3대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조성된 정세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과 통일역량과 반통일세력간의 역량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과 총화에 기초한 탁월한 전략적방침이었다. 또한 민족의 주제적통일에국력량을 강화하면서 국제적력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었다. 조국통일의 3대력량을 튼튼히 준비할데 대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온 겨레는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통일위업을 안아올수 있는 위대한 지침을 가지게 되었으며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공화국은 북남부를 조국통일의 보루로 굳건히 다지는 한편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남조선에서는 군사파쇼(정권)의 가혹한 폭압속에서도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남조선의 광범한 사회계는 파쇼독재(정권)이 70년대 후반기에 가서나 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취한 통일론의 금지조치를 결렬히 반

대배격하고 그것을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열화같은 요망》을 배신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하는 도피행위, 《통일보다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통일문제는 《민족의 념원, 당면과제로 언제나 부단히 논의되고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와 그 앞잡이들이 분열정책의 방패로 삼고있는 《유엔감시하의 통일안》이라는 것을 한결같이 배격하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망상으로 낙인하고 출로는 민족의 자주적통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조선의 광범한 언론계도 《통일문제를 막연하게 타의에 맡겨버릴것이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게 자주성을 살려 추진성있게 이끌고나가야 한다.》, 《통일문제가 강대국들에 의하여 처리될 시에는 이미 지나갔다.》, 《민족주체주의를 높여 통일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이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 《민족주체주의의 형성이 빠르면 빠른수록 통일로 가는 길은 가까와온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지향성이 앙양되는 가운데 정세에서도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는 통일방안》은 《남북이 공동

으로 제안수락하는 통일안》이라고 하면서 북과 남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통일로 한걸음한걸음 접근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울려나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남조선에서 사대매국세력, 반통일세력에 맞서는 민족자주세력, 통일력량의 힘이 날로 더욱 장성강화되고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공화국정부가 벌인 적극적인 내외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의 조국통일로선의 정당성이 세계 각국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에 널리 알려지고 조국의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공화국은 1966년 한해 동안에만도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에 145개에 달하는 각종 대표단을 파견하고 161개의 사회주의나라대표단을 받아들여 호상 신뢰와 친선단결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강화하였다. 이리하여 북과 남에서, 국제적범위에서 조국통일의 3대력량은 더욱 튼튼히 준비되어 갔다. 본사기자 최 광 혁

해외동포들은 조국인민과 운명을 같이하는 민족의 한성원으로서 자기 나라 혁명이 잘되어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자주권이 확고히 실현되어야 자기들의 민족적권리도 튼튼히 담보될 수 있다. 사람이 자기 조국도 민족도 모르고 개인의 안락만 바라고 산다면 그러한 삶은 결코 값있고 행복한 삶으로 될수 없다. 사람은 마땅히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조국과 민족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아야 한다. 주체81(1992)년 10월, 조국산천에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의 어느날이었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사업을 하던 강일선선생을 만나주시었다. 원동에서 태어난 선생은 이전 소련시기에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건설관리국 기사장, 소련내각직속 중앙아시아농업 및 처녀지개간성 제1부상으로서 비교적 높은 관직에서 일해왔다. 그러다가 늦게나마 조국과 민족을 위한 통일애국위업에 나선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게 된 선생의 가슴은 새찬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이었다. 그 일마나 보고싶고 마음속깊이 숭상해온 아버지수령님이시었던가. 세월의 온갖 고생이란 고

생을 다 겪으시며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세게지도 위에서 빛을 잃었던 조국을 온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엄높은 주체의 나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를 다 겪으시며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세게지도 위에서 빛을 잃었던 조국을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신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전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시던 역사적인 날에도 만민의 열광적인 환영과 존경을 받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나도 한번 만나보셨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해온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 가슴속 깊은 소원이 드디어 풀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면친지를 만나신듯 강일선선생을 반겨맞아주시었다. 그의 환한 영상과 따뜻한 미소, 너그러운 인품, 구수하게 하시는 말씀은 봄날의 따사로운 햇빛과도 같이 선생의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 그에게 이역땅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을 묶어세워 조국통일운동을 벌려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조선사람은 조선을 위한 애국을 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교시를 주시었다. 조선사람은 조선을 위한 애국을 하여야 한다! 민족의 구성원임을 항강로 막고 통일애국의 한길로 역제 나가야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겨안으며 선생은 통일성업에 모든것을 다 할 것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황 금 속

애국을 하여야 한다 조선사람은 애국을 위하여

의강으로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 일찌기 스딸린도 《동방의 영웅 김일성장군》이라고 존경을 표시하였고 세계가 《세계정치의 원로》,

오늘도 울려오는 6.10 만세시위의 메아리

6월 10일, 95년전 그날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항적으로 항거해나선 6.10만세시위투쟁이 있는 날이다. 6.10만세시위투쟁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조선민족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었으며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으려는 애국적의지의 분출이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민족의 반일투쟁기운은 급속히 앙양되었다. 3.1인민봉기이후 나라의 독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지향과 열망은 더욱 높아지고 도처에서 반일투쟁이 새차게 벌어졌다. 조선민족의 반일기세를 총칼만으로는 억누를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일제는 무단통치를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꾸고 보다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식민지통치를 유지, 강화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한편 일제는 악명높은 고등경찰제도를 내오고 경찰병

력을 대대적으로 늘였으며 《치안유지법》을 비롯한 각종 파쇼악법들을 무어내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선봉을 일으켰다. 하지만 일제의 교활한 술책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반일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통치에 대한 조선민족의 분노와 반일투쟁기운은 더욱 고조되고 마침내 1926년 6월 10일 대대적인 반일시위투쟁이 일어났다. 온 나라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운동들은 《조선통일 만세!》, 《일본군대 물러가라!》, 《조선독립운동자들은 단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에 떨쳐나섰다. 이날 반일시위투쟁에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광범한 중층이 참가하였다. 시위군중은 일제군경들의 탄압에 굴함없이 맞서싸웠다. 전국적범위에서 과감하게 전개된 6.10만세시위투쟁은 그 무엇으로써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조선민족의 불같은 애국심과 자주독립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다는 것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민족의 6.10만세시위투쟁이 있는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일제가 패망한지도 76년이 되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일본의 침략적본성과 야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침략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지금 일본은 내외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성노예범죄행위를 비롯한 과거죄악을 덮어버리기 위한 역사외교에 미쳐날뛰고있다. 또한 독도를 한사코 저들의 땅이라고 우겨대면서 영토팽창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일본이 도교를 립경경대회와 관련한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한데 이어 이번에는 《자위대》를 선전하는 동영상에서 또다시 《독도영유권》문

제를 들고나왔다. 여기에는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유리한 사회정치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본의 불순한 흥심이 비껴있다. 일본이 조, 중, 외교력 역사교과서는 물론 외교정책, 방위백서 등 잡다한것들에 계속 《독도영유권》주장을 담고있는가 하면 잊지도 않는 그누기의 《위협》을 거듭면서 《자위대》무력현대화책동에 광분하는 등 사회의 군국화살행에 박차를 가하고있는것은 이 때문이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군국주의부활책동에 매달리는 일본의 망동은 우리 민족의 분노의 감정을 더욱 치솟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주 광 일

남조선근부호전세력이 지난 10일에 시작하여 오는 25일까지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진행되는 다국적연합공군훈련인 《레드 플래그》에 참가하고있다고 한다. 알려진것처럼 이번 훈련에는 남조선공군병력을 포함한 미국과 일본항공 《자위대》의 약 1500명의 인원과 100여대의 비행기들이 동원되고있다는 것이다. 남조선호전세력이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외면하고 한사코 《레드 플래그》훈련에 참가한것은 외세에 충실한 전쟁사환관, 아시아침략정책수행의 돌격대임을 스스로 드러내보이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레드 플래그》훈련은 철두철미 조선반도와 주변지역 나라들을 노린 침략전쟁연습

으로서 그 첫번째 목표로 삼고있는것이 다름아닌 공화국이다. 훈련내용만 보아도 이것을 잘 알수 있다. 《레드 플래그》는 《적》지휘시설과 같은 주요군사시설을 공격하는 항공차단훈련과 이것을 위해 《적》진

에 둔것이라고 거리낌없이 떠들어왔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호전세력이 《레드 플래그》훈련에 또다시 참가한것은 버릴수 없는 동족대결야망을 드러내놓고 침략적인 인디아태평양전략수행의 돌격대

능한 국가》로 변신하기 위한 헌법개정예 박차를 가하고있다. 조선반도와 우리 민족에 대한 재침열기에 들떠있는 섬나라와 함께 칼춤을 춘다고 하니 동족을 해치려고 천년속적에게 재침의 문을 서슴없이 열어주는것과 같은 미친짓이 아닐수 없다.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아랑곳없이 상전의 부채질에 따라 전쟁불기들을 몰아오려고 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의 망동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수 없고 용납할수 없는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인 죄악이다. 불을 즐기는자는 재가 지른 불속에 타죽어마련이라는 것이 력사가 주는 교훈이다. 본사기자 김 광 혁

범죄적인 군사동맹을 반대하는 투쟁 고조

지난 15일 남조선 언론 《민플러스》는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추진위원회(8.15추진위원회)가 발족된데 대해 전하였다. 8.15추진위원회는 발족선언문에서 일제강점기를 갈장내고 해방된 76년동안 해방은 여전히 미완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조선반도는 언제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지 모를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밝히었다. 그러면서 《한》미일군사동맹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은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은 어느때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발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선언문에서는 70여년 이어진 전쟁과 대결을 끝내고 《한》미일군사동맹을 반대할것을

민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없이 군국주의길로 내달리고 있는 일본과 억지로 화해시키려 하고있다. 2015년 미국이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도록 강요한것을 다시 되풀이하려고 한다. 《정부》가 초기에는 초콜빈의의 논치를 보며 일본군성노예문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척 하더니 이제는 아예 로골적인 대미추종, 친일행보를 보이며 《한》미일군사동맹의 길로 나아가고있다고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한》미일군사동맹반대와 일본을 강력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고 언론은 전하였다. 본사기자

▶▶▶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야수적인 고문, 학살만행

사람들은 아주 악독한것을 하는자를 중요하여 악마라고 부른다. 그러나 지난날 일제가 조선사람들에 감행한 만행을 공표할 때 악마라는 말만으로 단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일제가 조선인강제징용자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그들에 대한 잔인하고 야수적인 고문과 학살을 감행한 사실만 놓고보아도 이를 잘 알수 있다. 일제는 가혹하고 과중한 로동에 걸맞지 않아 도망치거나 도주하기가 보이는 징용자들이 태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형벌을 가하였다. 일본감독들은 잡아온 징용자들을 전체가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긴 다음 5~6명이 달려붙어 각이 진 붓으로 때리고 차고 짓밟았다. 감독들은 도망치다가 붙잡힌 사람들을 죽일 권한까지 가지고 고문하였다. 때로는 천정에 매달아놓고 개가 물어뜯게 하여 죽이거나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마구 두들겨 패서 죽이기도 하였다. 일제의 이와 같은 야수적인 고문만행으로 많은 조선

징용자들이 학살되었다. 일제의 치명리는 고문만행에 대해 한 목격자는 이렇게 증언하였다. 《어느날 감독들은 한 소학교강당에 수많은 조선로동자들을 모아놓고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부와라고 하면서 손발을 쫓공 묶은 로동자 한사람을 강당천정에 매달고 몇놈이 교대로 30분동안 얻겨며 때려 피를 토하고 죽게 만들었다.》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일제의 고문과 학살만행은 합법화되었다. 그것은 징용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에 광갱이주, 참대갱, 각종 쇠꼬챙이, 각목, 일본도, 채찍 등의 흉기들을 갖추어놓고있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일제야수들은 굶은 쇠꼬챙이를 불에 달구어 징용자들의 잔등과 어깨, 얼굴과 허벅다리를 지지었고 지어는 사람의 잔등을 칼로 제고 거기에 불에 달근 연덩어리를 밀어넣었으며 채찍과 각목으로 때려 내장을 파열시켜 죽이기도 하였다. 일제는 언제공사장들에서 교역에 시달려다 사고로 멸

어진 사람들을 콩크리트혼합물과 함께 생매장하는 치명리는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고 병에 걸려 자리에 놓는 사람들을 채 숨이 지지 않았으니 가마니에 돌출 말아 깊은 산속에 내버리기도 하였다. 일제는 로동현장에 초보적인 안전시설도 갖추어놓지 않고 징용자들을 노예로동에 마구 내몰아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각종 로동재해로 목숨을 잃게 하였다. 어느 한 탄광에서는 강한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나자 감독들이 사고현장에서 로동자들을 구원할 대신 《조선놈들이 죽더라도 석탄을 태워버릴수는 없다.》고 뇌거리며 갱입구를 막아 몽땅 생매장한 사실도 있었다. 다음날 아침 갱입구를 여러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시체가 입구안에 쌓여있었고 손톱은 모두 빠져있었다고 한다.

1941년 3월 18일 일본 폭가이드의 한 탄광에서는 굴판통을 하면서 최대의 폭발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로 조선사람 177명이 죽고 29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당시 이 탄광에 징용되었던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하였다. 《1941년 봄 갱구에서의 대폭발소리는 놀라울 정도의 큰소리였습니다. ...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전부 화장하

였는데 3~4일 걸렸습니다. 골짜기에 화장연기가 들어차서 한주간이나 냄새가 배여 풍겼었습니다.》 조선인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일제의 야만적인 고문과 학살만행자료를 쫓자면 끝이 없다. 참으로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지지른 친일공노화죄악은 절대로 지워버릴수 없고 용서할수도 없는 특대형 반인륜적범죄만행들이다. 본사기자 류 현 철



눈길을 끄는 장미꽃 풍경

지금 평양시내의 곳곳에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나 오가는 사람들을 반기고 있다.

장미는 아름다움과 그윽한 향기로 하여 누구나 관심하고 좋아하는 꽃이다.

사랑과 열정, 고상함을 상징하는 장미는 세계적으로도 《꽃중의 왕》으로 불려온다.

이런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거리거리에 아름다운 꽃풍경을 펼쳐고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즐겨 찾는 메아리사격장에 각종 장미꽃들이 피어났다.

이곳에서는 여러해전부터 붉은 장미, 사계절장미를 비롯한 10여종에 달하는 장미들을 심어가꾸어오고 있다.

금문운동관 앞마당에도 각이한 색깔과 크기의 장미꽃들이 피어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금속강병이제품전시장에 피어난 장미꽃들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고있다. 특히 두가지색을 띠고있는 장미는 보는 사람마다 특이하다며 감탄한다. 이곳에서는 건물우에도 장미를 많이 심고있

는데 찾아오는 손님들은 모두 장미꽃향기에 취해 즐거워하고있다.

평양의 거리거리에 펼쳐진 장미꽃풍경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부강하고 문명한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흥겹게 해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철민 사진 본사기자 동장현



조선의 명승

묘향산의 쌍둥이폭포

묘향산의 대하폭포에서 나무그늘이 짙은 산골이름 돌아 500m정도 가면 인호대 빙하전곡의 뒤면절벽에 두줄기폭포가 있는데 동쪽의 것이 산주폭포이고 서쪽의 것이 룡연폭포이다.

룡연폭포는 묘향산의 수많은 폭포들 가운데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기로 손꼽히며 누운폭포로서 특색이 있다.

폭포의 윗부분에 신기한 룡소가 있다 하여 룡연폭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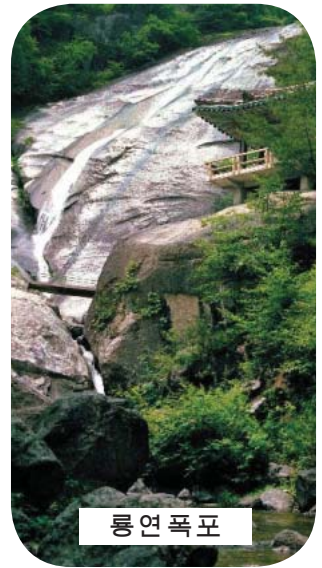
이 폭포의 높이는 84m이며 길이는 105m이다.

범왕봉짜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폭포의 윗부분에 있는 룡소를 채웠다가 다시 넘어 바위로 떨어지는데 폭포수는 마치 룡이 꿈틀거리며 흐르는것 같기도 하고 흰 비단 필을 드리운것 같기도 하다.

폭포수는 처음 약 50m 구간 암반을 따라 곧추 떨어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물매가 느린 20여m의 구간을 흐른 다음 다시 약 15m의 높이에서 곧바로 떨어진다.

룡연폭포는 흥미있는 전설이 깃들여있는 기암 인호대와 옛 건물인 상원암 등과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절경을 이룬다.



룡연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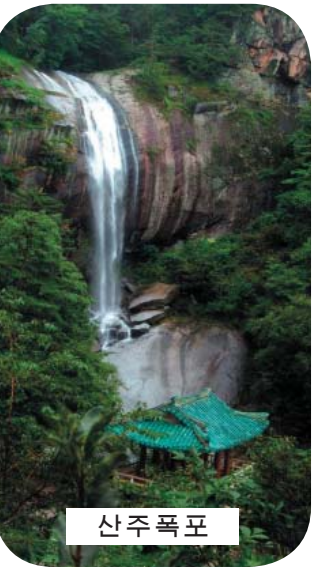
이 폭포와 50m정도의 사이를 두고 산주폭포가 있다.

산주폭포와 룡연폭포는 상원암을 중심으로 그 양쪽에서 어깨걸고 흘러내리므로 쌍둥이폭포라고도 한다.

룡연폭포가 누운폭포라면 산주폭포는 선폭포로서 이채를 띤다.

산주폭포의 높이는 29m이며 길이는 51m이다.

두 폭포의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에는 휴식각 룡연정이 있다.



산주폭포

지금은 봉선화꽃이 곱게 피어나는 6월이다.

예로부터 6월에는 처녀들이 봉선화물들이기를 하였다.

일명 《봉숭아》라고도 부르는 봉선화는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가꾸어온 꽃이다.

꽃색이 붉은색, 흰색, 붉은 보라색, 분홍색 등 여러가지이며 꽃의 모양과 크기도 각이

하다.

봉선화물들이기놀이는 《봉선화》의 이야기에 유래를 담고있다.

옛날에 종살이를 하던 마음씨고운 봉선이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하늘나라 신녀에게서 받은 금빗으로 머리를 빗게 되면서부터 어엿하게

피어났다. 그러자 시샘이 난 부자들의 너넨네가 그것을 훔치고는 자기 빗을 가져다놓고 도적으로 몰아대었다. 억울한 투명을 쓰고 판가에 잡혀가던 봉선은 차라리 깨끗하게 죽으리라 결심하고

은 물에 몸을 던진다. 마을 사람들은 봉선이를 해 잘 드는 뒤동산 양지쪽에 묻어주었다. 그후 봉선의의 묘에 난 생취을 보는 방울같이 생긴 꽃이 한가득 피었는데 사람들은 그 꽃을 《봉선화》라고 불렀다.

옛날부터 어린 처녀들은 이 이야기의 봉선이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니려는 심정에서 손톱에 빨간 봉선화물을 들이곤 하였다고 한다. 그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오늘날까지 내려온것이다.

봉선화의 꽃과 잎을 따서 백반이나 소금과 섞어서 짓겨 손톱에 대고 풍요이나 피마주와 같은 넓은 잎으로 감싸쳐매서 하루만 지나면 진분홍색의 물이 곱게

든다. 이렇게 3일쯤 하면 더 빨갛고 고와지며 또 잘 지워지지도 않는다. 처녀들은 손가락에 봉선화물을 들이는 놀이를 즐겨하였으며 젊은 녀인들도 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사화



림제와 화전놀이 (7)

글 리빈, 그림 김윤일

생각이 지어지 복잡할 속에 문득 무엇인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지! 그것으로 굶배버려도 수수감할게.)

그는 한 아전에서 좋은 옷과 붓을 받아들고 죽시에 일필휘지로 몇줄 갈겨준 다음 태연히 붓을 놓았다.

모두가 긴장하여 그를 지켜보는 속에 레방이 림제의 시지를 열른 집어다가 군수에

에게 주었다. 글을 들여다보는 강사문의 눈이 등잔마냥 커지다가 이어 인차 밝아지는 얼굴에 미소가 어리었다.

연속 머리를 끄덕여가며 두번을 곱씹어 읽고난 강사문은 세손으로 직접 잔이 넘치도록 술을 부어가지고 림제

를 데리고 갔다. 백경의 눈에 짙은 의욕이 비쳤다. 주위 랑만들은 물론 아전과 하인, 시중군들모두의 기색도 그와

다름바가 없었다.

삼시에 정적이 깃들었다. 그도 그럴것이 고희관장이 직접 술을 부어주고 벼슬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때는 극히 쉽지 않은 일이었기때

문이었다. 하물며 군수 그 자신이 미워하던 림제인데야...

림제가 흔연히 그 잔을 받아들여 술을 마시자 군수의 시가 격조높이 울려나왔다.

정관평석소계변 백분청유자두견 쌍저인래향만구 일년춘색복중전

(시내가에 돌을 고여 번철을 펼쳐놓고 흰가루에 찹쌀 섞어 꽃지

집을 지어볼까 한집 집어먹어보니 향기는 넘쳐나

한해의 봄빛이 배안에 가득채네)

술기를 마치자 강사문은 감개무량한 어조로 좌우를 둘러보며 절절한 어조로 말

을 하였다.

《백호선생의 이 글이 얼마나 훌륭하오. 뜻도 깊고 표현은 또 얼마나 좋소. 일년춘색복중전! 일년춘색복중전이라, 음미해볼수록 가슴이 후후소. 화전이라는 조

상전래의 유품에 대한 격찬과 화전의 소중한 가치가 하나의 글귀에 다 담겨있지 않나 말이요, 우리 평산선비들, 이런 시풍을 본받기요.》

림제는 의아하였다.

《무슨 말씀음...》

《홍소. 지난날에는 육했다

고 크게 놀랐었소. 오래동안 생각이 많았지. 선생의 그 말씀은 사람은 신분에 앞서 인격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교훈이 아니겠소. 내 나름의 생각이

있던차에 오늘 접한 선생의 시는 진정 선생을 다시 보게 만들었소. 그 글에 조상전래의 유품을 사랑하는 정신이 깃들고 문인의 깨끗한 랑심이 거울처럼 비껴있지 않았소.

같은 곧 사람이라는데 내 이렇듯 고결한 선생을 비난했으니 인사불성이요. 이번 기회에 선생한테서 많이 배웠소. 고맙소. 이게 다 우리 단군민족의 자랑스런 풍속인 화전놀이의 덕이 아닐까!》

림제는 감동되었다.

《나 역시 오늘 풍을 다시 보게 되었소. 그런데 또 이처럼 좋은 말을 해주어서 고맙기는 하오만 과찬은 듣기가 몹시 거북하오그려.》

이어서 그는 랑해를 청하며 방금 강공에게 보인 글은 이 자리에서 지은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른 곳의 화전놀이때 지었던것이라고, 오늘날은 글짓고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는데 공의 권고에 차마 마다할수가 없어 낮이 간지러운걸 옛것으로 둘러쳤는바 이것은 호의에 등을 돌린 행위인즉 잘못했노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강사문이 웃음으로 그의 말을 흔연히 받아들였다.

고 크게 놀랐었소. 오래동안 생각이 많았지. 선생의 그 말씀은 사람은 신분에 앞서 인격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교훈이 아니겠소. 내 나름의 생각이

있던차에 오늘 접한 선생의 시는 진정 선생을 다시 보게 만들었소. 그 글에 조상전래의 유품을 사랑하는 정신이 깃들고 문인의 깨끗한 랑심이 거울처럼 비껴있지 않았소.

같은 곧 사람이라는데 내 이렇듯 고결한 선생을 비난했으니 인사불성이요. 이번 기회에 선생한테서 많이 배웠소. 고맙소. 이게 다 우리 단군민족의 자랑스런 풍속인 화전놀이의 덕이 아닐까!》

림제는 감동되었다.

《나 역시 오늘 풍을 다시 보게 되었소. 그런데 또 이처럼 좋은 말을 해주어서 고맙기는 하오만 과찬은 듣기가 몹시 거북하오그려.》

이어서 그는 랑해를 청하며 방금 강공에게 보인 글은 이 자리에서 지은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른 곳의 화전놀이때 지었던것이라고, 오늘날은 글짓고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는데 공의 권고에 차마 마다할수가 없어 낮이 간지러운걸 옛것으로 둘러쳤는바 이것은 호의에 등을 돌린 행위인즉 잘못했노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강사문이 웃음으로 그의 말을 흔연히 받아들였다.

《리해되오, 리해되고 말고. 나를 비롯해서 여기 사족들이 뒤에서 자기를 비난한줄 모르지 않을 선생이 무슨 흥이 나서 글을 짓겠소. 옛글을 내놓은것만도 다행이요. 옛글이면 또 어찌단 말이요. 그 글도 역시 림백호 선생의 글이 아니겠소. 어느 곳의 화전놀이든 우리 나라 화전놀이는 다 똑같은것인데 여기서 새로 쓴다한들 다르게 될수가 없지 않소. 보오, 그전에 다른 곳에서 지은 글이 어울려 다른 사람 같으면 끝내 숨기야말았을것을 특별어놓는 기백 또한 찬양할 만 하지 않았소. 과시 호방한 백호선생이시요.》

화전놀이가 끝나 모두 산에서 내려올 때 림제는 백경에 신중히 권하였다.

《오늘 화전놀이는 내가 수 없이 참가하여 즐기곤 하던 화전놀이들 가운데서 가장 인상이 깊었소. 그리고보니 백경이 문집에 올린 화전놀이 기록은 내용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요. 오늘날의 화전놀이를 본보기삼아 기록에 다시한번 더 손을 대보지 않겠소?》

《예, 옳은 말씀입니다.》...

(끝)